

## 해방전 이북지역 개신교 주요인물 및 종교지형 연구: 주요인물의 상호관련성 및 ‘기독교 민족주의’ 사상 공유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jor Protestant figures and Religious landscape  
in the northern region before liberation: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major figures  
and the sharing of ‘Christian Nationalism’ ideology**

정교진 (Kyo Jin Jung)\*\*

임호정 (Ho Jung Lim)\*\*\*

### ABSTRACT

It was none other than Protestantism that became the medium of progress against Neo-Confucianism in the northern region after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leaders of the major forces in the northern region specifically addressed in this study, such as Ahn Chang-ho, Cho Man-sik, Han Kyung-Chik, Kim Kyo-shin, and Kim Chai-joon, can be referred to as Korean Protestant nationalists. In some respects, “Christian nationalism” can be said to be the common denominator of these Protestant leaders. This ideology has a strong antagonistic character to ‘exclusive nationalism’ based on Neo-Confucianism. Of course, early nationalists like Ahn Chang-ho were under the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However, as they came into contact with Christianity, they grafted nationalism into the Christian faith and advocated “Christian nationalism.”

It is a fact that the “Christian nationalism” established by early Christian nationalists under the influence of conservative theology also had some influence on the Protestant leaders who pursued liberal theology. It appeared as a movement to establish a national identity and capacity-building movement. However, the religious landscape in which they

\* 2021년 11월 11일 접수, 12월 12일 최종수정, 12월 22일 게재확정

\*\*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연구교수,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2(소사본동)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714호, ezekie9191@gmail.com

\*\*\* 이화여대 북한학과(Ewha Womans University - North Korean Studies) 박사수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lilydew@daum.net

stood was clearly different, and due to this influence, conservatism and liberalism are still on the opposite side until today in Korean Protestantism. Nevertheless, both early Protestant leaders dreamed the same dream which is self-reconstruction and society-reconstruction, further national-reconstruction, and nation-reconstruction through Personality discipline and capacity-building based on the spirit of 'Christian nationalism' and in a larger category 'nationalism'.

**Key words :** Fundamentalism, liberalism, Religious landscape, Christian Nationalism, Trans-religious nation, Christian nation, ethnic Christianity, open Christianity

## I. 들어가며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월남 개신교인들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특징은 대부분 강인철의 논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강정구, 1992; 손영준, 1993; 김귀옥, 1999; 김현정, 2010; 김상태, 2011). 몇 가지 공통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바로 월남 개신교인들이 반공이데올로기로 남북분단을 고착시킨 주체들이라는 것과 이들이 친미보수주의자들로 이승만 정권에 편승했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월남 개신교인들이 해방 후 남쪽으로 월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남한 사회에는 사회주의적인 풍토가 낫설지 않았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1920-30년대 남쪽에서는 이미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김홍수, 1992; 강명숙, 1999; 장규식, 2001; 김권정, 2015).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 한국에 소개된 사회주의 사상은 1920년대 초의 한국 민족운동과 민중들의 사회의식 진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인들은 사회주의 이론에서 처음으로 민족해방과 사회변혁을 위한 이론적 도구를 찾았던 것이다(권진관, 1992:8). 특히 사회주의 세력은 1920-30년대 기독교 배척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기독교와 사상적, 운동적 대립관계를 형성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사회 문제를 외면한 '비정치화' 경향의 교회지도자들을 규탄한 기독교청년들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독교계에 심각한 동요를 불러왔다.

국내 사회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반종교운동을 표명한 것은 1923년 4월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였다. 여기에는 일반 청년단체 이외에도 선천기독교청년회 등 9개의 종교 청년단체가 참가했다(김권정, 2015). 이처럼, 1920년대 초반부터 기독교 안에 사회주의 사상이 보편화되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개신교 안에 팽배해 있었다. 월남 개신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남쪽지역에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반공의 주체세력으로 월남 개신교인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월남 개신교인들과는 무관하게 해방 후 남쪽지역 교회들도 미군정의 후원 아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정치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복음의 확장을 꾀했다. 이는 기독교 국가의 건설이라는 당면 과제와 맞물려 전개되었다.<sup>2</sup> 하지만, 남쪽지역에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는 주

1) 강인철은 "월남자 그룹이 남한사회 안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공주의 세력이었으며, 개신교 월남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반공주의는 월남자들과 독재정권을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접착제였다"고 했다(강인철, 1992:91-141; 강인철, 2008:145)

2) 정인과 목사가 이끌던 조선민주당, 양주삼 목사가 주도한 기독교동지회, 그리고 박용희 목사가 앞장섰던 사회민주당 등이 결성되거나 결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정당으로 흡수되거나 자진 해체되었다(장규식, 2003:16).

로 기독교단체나 우익정당 참여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기독교단체로는 친미·반공적 성향의 ‘조선기독교남부대회’(1946, 김관식), ‘기독신민회’(1945, 박용희), ‘독립축성기독교중앙회’(1945, 함태영), ‘조선기독교청년동맹’(1945, 김규식), ‘그리스도교연맹’(1947, 함태영) 등이 있다. 한편, 반미·친공적 성향의 단체도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민주동맹’(1947, 김창준)이다.

위의 단체들의 현황만 보더라도, 이미 남한지역의 정치지도자에게 반공사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민주동맹’처럼 반미·친공의 좌익 성향의 단체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월남 개신교인 하면 앞의 기존연구자들처럼, 친미, 반공, 보수(근본주의)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생각은 말 그대로 ‘대략적인 사고’일 뿐이다.(김건우, 2015). 월남 개신교인 유력 세력 가운데도 자유주의 신학의 풍토와 중도적, 반미 성향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 세력으로 김교신, 함석헌 등의 <성서조선>(잡지명) 멤버와 간도 용정지역에서 일어난 김재준과 그의 제자(강원용,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들의 <한신파 그룹>(후에 붙여짐)이다. 월남 개신교인들을 반공, 보수주의자들로, 남북분단 고착화의 주체들로 평가하는 것은 한경직이 중심이 되는 일부 장로교 보수세력에 대한 연구에만 편중되고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월남개신교인들이 대부분 친미보수주의자들로 이승만 정권에 편승하여 국가-교회 간 유착관계를 형성시켰다는 견해도 일부 장로교 보수세력에 대한 편중된 연구에서 비롯된다. 월남 개신교인들은 이북지역에서부터 이미 정치활동을 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안창호의 수양동우회와 흥사단은 야권의 주요세력이었다. 따라서 월남 개신교인들이 정치에 편승했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

이 같은 오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해방 전 이북지역(간도 포함)의 대표적인 개신교 지도자들의 정치-종교지형(신학적 성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지도자간 교차관계 및 상호영향력을 조망함으로써 지도자들 간에 공유되었던 기독교 사상이 있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적 개신교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안창호 ②조만식 ③한경직 ④김교신 ⑤김재준 등이다. 지도자들 선정하는 데 있어 종교만이 아닌, 정치지형에 속했던 이들로 해방 후의 영향력까지도 고려하였다. 시기순으로 하면 안창호 선생이 가장 앞선다. 안창호 선생은 ‘기독교 민족주의’를 전국적으로 보급시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및 배경: '기독교 민족주의' 논의

### 1) '민족주의' 검토

'민족주의'는 근대국가 형성의 대표적 이데올로기로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대중들을 통합하고,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자율적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념적 운동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포괄하는 주제와 범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에 접근하는 학문적 방법론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편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임지현, 1999:21-26). 민족주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한 '자국중심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에 희생된 지역들에서 나타난 '저항적 민족주의'이다(최영근, 2010:10). 두 번째 유형인 '저항적 민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민족주의 대표적 양식이다.<sup>3</sup> 민족주의는 한국 근현대사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조선>이라는 전통왕조국가가 일제 식민 지배 과정을 통해 해체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근대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한국을 근대 민족-국가로 재건하고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이후 민족주의는 국가 수립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국가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국민을 민족의 이름 아래 수렴하고 통합하여 이끌어가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최영근, 2010:12).

손규태는 한국 근대사에서 형성된 민족주의를 '성리학적 민족주의', '실학적 민족주의', '동학적 민족주의', '개신교적 민족주의'로 유형화하였다(손규태, 1995). 여기서 '성리학적 민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가리키며 '개신교적 민족주의'는 바로 '기독교 민족주의'를 가리킨다.

### 2) '기독교 민족주의' 검토

한국에서 기독교는 근대화 혹은 문명화를 매개하면서 민족주의와 깊숙이 연결되어 한국사회 주류 종교로 자리잡아 나갔고, 한국 민족주의가 일제시기 한국사회에서 보존되고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와 매개가 되었으며, 기독교 복음이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민족주의와 '접합'하여 '기독교 민족주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와 '민족주의'는 서로 대치되는 성격으로 파악 되었다.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는데, 개신교 사회과학자인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민족주의를 이상숭배로까지 간주했다. 자크 마리탱(Jacques Maritain)은 민족은 '성스러운

3) 저항적 민족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였고 중앙집권적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이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일제의 탄압과 통제가운데 파편화되었고, 민족주의 노선 사이의 갈등과 경쟁, 그리고 내적인 에너지와 운동력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과 목표를 지닌 운동으로 다변화되었다.

절대 이기심을 지닌 세속적인 신성'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1,2차 세계대전의 재앙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민족 국가의 개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국가를 동일시하는 것을 책망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을 하였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이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들이었다(케네스 웰즈, 2017:13). 이들은 '기독교'와 '민족주의'를 분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개화계몽기를 지나 일제강점기 아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독교'와 '민족주의'를 접합시키고자 하였다.

개화계몽기의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민족주의'는 성리학(배타적 민족주의 표방)을 배경으로 했던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의 주안점이나 방법 등, 일부 요소를 포함시켰지만, 개신교적 가치관으로의 민족적 정체성 변화를 추구하므로 사대주의와 성리학자 기득권층의 부패한 사리사욕에 반대하였다. 새로운 민족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노선에 따른 상업과 공업의 근대화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케네스 웰즈, 2017:29-30). 그 출발점은 1896년에 세워진 독립협회라 할 수 있다. 협회를 세운 주요인물인 서재필, 윤치호, 안창호는 성리학 배경 아래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개신교 개혁가들로서,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힘을 기르기 전에 내면적, 영적, 윤리적 강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상을 내세우며, 인간개조 및 인격수양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이 같은 정신은 1920년 당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였다. 1922년 4월 4일에서 6일까지 개최된 세계기독교학생청년회(WSCF)에 조선인 대표로 이상재, 김활란, 김릴폐, 이대위, 신흥우, 여운홍이 참석했다. 이 대회의 주제는 '기독교와 세계개조'였는데, 기독교정신으로 개인을 개조하면 그것이 국가의 개조가 되고 나아가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김광식 외, 2008: 29-45). 한국기독교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비정치화, 비역사화되면서 민족주의와 단절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1919년 삼일운동을 기점으로 '기독교 민족주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김권정, 2015: 23).<sup>4</sup> 그 확산과정에 기독교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성격의 담론들을 양산하게 된다.

4) 김권정은 기독교와 민족주의 결합의 조건을 “기독교신앙의 내적 논리가 민족운동의 일반논리와 결합되어 민족운동에 동력이 되었을 때라고 보았다.

## II. 해방 전 북한지역의 개신교 생성 및 종교지형

### 1. 해방 전 남북한 개신교 분포

해방 전인 1941년도 남북한을 합친 개신교 인구는 33만 9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90.5%가 장로교(75.6%)와 감리교(14.8%) 소속이다. 북한지역에서는 두 교파 신자들의 비율이 남한지역보다 더욱 높았다. 당시 북한 개신교 신자는 모두 22만 8천 명으로 이 가운데 장로교(83.8%)와 감리교(10.2%)의 신자가 북한 개신교 인구의 94%를 차지했다. 특히 북한 개신교 신자의 89.2%가 서북지역(평안도, 황해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서북지역의 경우, 장로교(84.7%)와 감리교(10.9%)에 속한 개신교인의 비율이 무려 95.6%나 되었다(강인철, 1992: 136).

해방 당시 남북한 전체 개신교 신자의 60%에 해당하는 약 20만 명(같은 시기 북한 인구의 2.2%)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 5년 사이에 교세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북한 개신교 인구의 35-40%에 해당하는 7-10만 명이 남한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강인철, 2008: 132).

### 2. 해방 전 북한지역의 개신교 현황 : 근본주의 대 자유주의 대립각

북한지역에서 개신교 활동의 중심은 서북지방이었다. 서북지방은 조선조 내내 차별을 받았던 지역이다. 근대 이후 개신교의 세가 전국에서 가장 강했던 것도 개신교를 조선조 통치이념인 주자학에 대항하는 가치관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김준엽, 2003: 38; 김건우, 2017: 39).<sup>5</sup> 이 지역에서 개화 계몽기에 개신교가 일찍 수용된 것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일찍 발달한 배경이 깔려있다. 개화 계몽기 이후 이 지역에서 '진보'의 매개가 된 것이 다름 아닌 개신교였던 것이다.

19세기 말 한국에 진출한 서구 개신교는 교파 교회들로 미국의 남북장로회와 캐나다장로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가 있다. 한국에 파견한 장로교 계통 4개 선교회와 감리교 계통 2개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은 1892년부터 1909년에 이르기까지 상호간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는 조치로써 일련의 '선교지역분할협정'(Agreements on Division of Territory)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서북지역은 북장로회와 북감리회가 맡았고, 관북지역(함경도) 대부분 및 간도지역은 캐나다장로회가, 관북지역 일부(함경남도 일부)는 남감리회의 관할지역으로 설정되었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 213-218). 이에 따라, 서북지역은 한국 장로교의 핵심 근거지가 되었고 일제 강점기 내내 한국개신교의 서북 주도 양상은 지속되었다(김상태, 1998: 176).

5) 김건우는 조선의 이념인 성리학을 중심에 놓았을 때에는 평안도(서북지역에 포함)가 변방의 가장 낙후한 지역이었지만, 유교적 질서에 반하는 것을 '진보'로 상정하면 오히려 가장 앞선 지역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제시함.

195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교회에 대한 선교사들의 지도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교파주의적인 지역분할은 선교부의 선교정책과 신학노선에 따라 지역 교파 간의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종교권력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항시적이었다. 1920-1930년대에 이런 일들이 전형적으로 발생했다. 장로교의 경우, 한국에 진출한 4개 선교회가 모두 근본주의적 성향의 대단히 보수주의적인 신학을 기조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1925년에 캐나다 장로교회가 감리교, 회중교회 등 다른 캐나다 개신교 교파들과 연합하여 '캐나다 연합교회'로 재편되었으며, 이질적인 신학적 지향을 지닌 교파들의 연합과정으로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캐나다에는 과학과 성서비평이 크게 유행하였다. 결국, 이러한 도전이 기독교 자유주의(기독교의 초자연적인 면을 불신하고 기독교 윤리에 집중하는 경향)의 발전을 가져왔다. 캐나다에서 기독교 자유주의는 20세기까지 계속 성장하였다(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2002: 1137).

이 무렵부터 캐나다연합교회의 한국 선교회를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수주의 신학에 젖어 있던 관북지역 장로교 신자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엄청난 혼란과 분규가 이어졌다. 관북지역은 점차 신학적 자유주의를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한반도 유일한 지역으로 변해갔다. 캐나다 한국 선교회는 타문화, 타종교들에 대한 관용정책을 펼치므로 한국의 사당, 성황당의 존재 및 그 종교행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는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타 국가 선교사들과는 차별화된 정책이었다(서정민, 2007: 271). 세계 2차 대전 발발로 선교사들의 지배력이 약화 된 1940년에는 일부 관북 출신 한국인 장로교 지도자들이 서울에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최초의 신학교(조선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 내 최대의 선교단체인 북장로회가 대부분 관할하던 서북지역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일이 전개되었다. 수십 년에 걸친 미국 장로교의 근본주의 대 자유주의 대결에서 자유주의자들이 1920년대에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압도적 다수 세력인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인 선교사들의 한국 입국을 막는 등 모교회의 이런 변화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조선신학교 등장 이전에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이자 서북지역 중심도시인 평양에 소재하고 있던 평양신학교는 근본주의 신학의 공고한 성채로 남아 있었다. 이처럼, 1920-1930년대에 걸쳐 관북의 자유주의와 서북의 근본주의라는 신학적 지형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일제 강점 말기, 조선신학교로 대표되던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식민지 당국의 정책에 대체로 협조적이었다. 오히려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가치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특히 일제 당국에 의해 신사참배와 궁성요배가 강요되었을 때 이를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격렬하게 저항하고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이었다.

해방 후 1950년대까지도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냉전적 반공, 분단체제와 독재적인 기존 정치체

제에 순응하거나 협력하였다. 시대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의 사회 참여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 수도 진보적인 성격을 띠 수도 있었다. 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신학적 자유주의는 보수적 정치참여와 결합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학적 진보주의는 정치적 진보주의와 결합되기 시작했다.

### III. 이북지역 개신교 주요인물 및 핵심사상

이북지역은 한국개신교의 중심지로서 해방 이전부터 막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역량을 갖춘 사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내었다. 중심이 되었던 지역은 서북지역으로 이 지역 개신교 신자들은 일찍부터 상인층과 민족자본가층, 중농 이상의 농민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이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시민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다. 1910년 5월 당시, 서북지방의 개신교계 학교는 모두 511개로 이는 개신교계 학교 전체의 78%, 전국의 종교단체 설립학교 중의 64%, 전국 사립학교 총수의 23%에 해당한다(윤경로, 1986: 313).

이북지역의 개신교 주요인물과 그들이 이끌었던 단체는 다음과 같다. ① 안창호의 「수양동우회」 ② 조만식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 ③ 한경직의 「기독교사회민주당」 ④ 김교신의 「성서조선」 그룹 ⑤ 김재준의 「용정기독교모임」(이후, 한신파)이다.

#### 1. 안창호의 '기독교 민족주의'

도산 안창호(1878-1938, 평남 강서)는 개화 계몽기와 일제 강점기에 걸쳐 서북 지식인들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조직의 중심이었다. 그는 청일전쟁 당시 1895년 상경하여 구세학당에 들어가 개신교인이 되었다. 1897년에 독립협회에 가입하였고 필대은과 함께 평양에서 관서지부조직을 맡게 되었다. 이때 평양지회 결성식이 열린 평양의 쾌재정에서 감사 조민희와 수백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18 조목의 쾌재와 18 조목의 부재를 들어 정부와 관리를 비판하고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1898년에는 서울 종로에서 이상재, 윤치호, 이승만 등과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1899년에는 강서군 동진면 화암리에 강서지방 최초의 근대학교인 점진학교를 설립하였다. 1902년 도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여 교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향상을 위한 한인공동협회를 만들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06년 귀국, 10월에 계몽운동을 위해 박은식, 김병희, 신석하, 정운복, 이갑, 유동설, 노백린 등 평안도, 황해도 출신 인사들과 함께 평

양에 「서우학회」를 세웠다(서정민, 2007: 39).

1907년에는 윤치호, 양기탁, 신채호, 이동녕, 이동휘(1906, 한북흥학회), 이승훈과 함께 항일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 만들어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하여 새로운 근대국가 건설을 꾀하였다. 평양에는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청년학우회를 조직, 민족지도자 양성에 힘썼다.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청년학우회가 해체되자 1913년 「홍사단」을 조직하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 등을 역임하며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1921년 임시정부의 내부분열로 1924년 미국으로 건너가 홍사단 조직을 강화하였다.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미국 홍사단은 로스엔젤러스(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지역의 한인 및 유학생들이 그 일원이 되었다. 한편, 하와이나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세력이 그 세가 강했다. 미국의 홍사단을 거점으로 그 세력이 집결되어 있던 안창호 세력은 3.1운동 이후 운동의 확대를 위한 한국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내 홍사단 조직결성을 모색하였다(김건우, 2017: 42).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 1926년에 홍사단 계열의 개량주의적 민족운동단체인 「수양동우회」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1922년 2월 서울에서 조직된 '수양동맹회'와 1922년 7월 평양에서 조직된 '동우구락부'가 결합한 조직이다. 이때 간부에 선임된 사람들은 김종덕, 박현환, 김윤경, 정인과, 조명식, 이경선, 김태진, 이윤재, 조병옥, 김창세, 정두현, 김여식, 박선, 김성업, 조명식, 김병연, 김동원, 유기준 등이었다(김권정, 2015: 200-201; 정교진, 2018: 196).

이들은 조직의 성격을 도덕적 인격수련과 경제적 실력양성을 위한 비정치적 수양단체로 규정했다. 그 이유는 3·1운동 이후 국내외 변동 속에서 세계가 아무리 변화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그 존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실력양성론적 인식이 1920년대 전반 개신교 안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수양동우회는 크게 네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광수, 김윤경, 이윤재 등의 수양동맹회 계열이다. 두 번째는 조병옥, 주요한으로 대표되는 언론가 계열이다. 세 번째는 교육가 계열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북지역의 중소자본을 기초로 형성된 중소자본가층 계열이다. 이들은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자립적 중산층으로 불리는 평민층 출신이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서북지역의 학교(대성, 오산, 송실, 신성, 양실)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학창시절에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김권정, 2015: 51).

개신교 교과로는 대부분이 보수적인 장로교 출신이었고 운동 경력에서도 주로 신민회 등 서북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애국계몽운동 계열이었다. 이후 안창호의 해외 홍사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였다. 1930년대에는 수양동우회의 영향력이 본회가 있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강력했으며 학력에서도 전문학교 이상 고학력자가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며 미국 유학 출신은 20명에 이

르는 당시 최고 엘리트를 망라한 '중추계급'의 거점이었다. 당시 평양의 핵심 멤버는 김동원을 비롯하여 송창근, 이경선, 한승곤 외 김봉성, 김성업, 김하현, 박영로, 오정수, 이선행, 장성심, 최능진, 최윤호 등이었다(장규식, 2001; 144-145). 이들은 민족운동의 방략에 있어서 서북지역의 중소자본가의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한민족자본의 육성을 도모하는 실력양성론을 강조하면서 인격수양과 자아혁신을 통한 민족개조론을 추구하였다. 민족개조론은 안창호의 핵심 사상으로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안창호와 같은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성리학을 배경으로 했던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의 주안점이나 방법 등, 일부 요소를 포함시켰지만, 민족국가체제를 세상을 위한 당연하고 타당한 질서로 받아들였고 개신교적 가치들에 맞추어 민족적 정체성이 바뀌기를 소망했다. 그들은 개신교적 영성을 자주와 공공 이타주의로 여겼고 이는 사대주의와 성리학자 기득권층의 부패한 사리사욕에 반대하였다. 새로운 민족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노선에 따른 상업과 공업의 근대화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케에스 웰즈, 2017: 29-30). 그 출발점은 1896년에 세워진 독립협회라 할 수 있다. 협회를 세운 주요인물인 서재필, 윤치호, 안창호로 이들은 성리학 배경 아래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들은 개신교 개혁가들로서,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힘을 기르기 전에 내면적, 영적, 윤리적 강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상을 내세우며, 인간개조 및 인격수양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이가 바로 안창호였고 그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단체가 바로 수양동우회였다.

## 2. 조만식의 '범 종교적 국가'

조만식(1883-1950, 평남 강서)은 안창호와 같은 동향인으로 일제 강점기 평양의 대표적인 개신교 민족주의 지도자였다. 그는 1920년 이래 「평양물산장려회」를 이끌었고 1932년부터는 조선물산장려회 이사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평양 물산장려회가 조선물산장려회와 같이 운동을 추진하였고, 이로써, 조선물산장려회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조만식은 1932년 5월 전국적인 절제운동단체로 창립된 '전조선기독교 절제연합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창립임원으로 공동회장이 되었다. 이 단체는 주류, 연초, 아편, 창기, 악질폐습 등의 해악 제거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이는 3·1운동 이후 기독교 세력이 추진한 민족·사회운동의 일환이었다. 1930년대 이북의 서북지역에서 기독교계 농촌운동이 적극 추진되었는데, 주요세력은 장로교 농촌부였다. 장로교 농촌운동은 1933년 농촌부의 총무로 부임한 배민수가 그의 동료인 박학전, 유재기, 김성원 등

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배민수, 1994: 347). 이들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농촌연구회」를 통해 농촌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조만식은 1929년 6월이 연구회에 고문으로 선출되어 농촌문제의 연구와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상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투영되고 작동되는 새로운 농촌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다.

조만식은 평소 대동단결을 주장하여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하려고 했지만, 민족주의를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며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와는 거리를 두었다. 이 같은 그의 정치적 성향은 해방 후 세워진 「평남건국준비위원회」<sup>6)</sup>(이하 평남건준)에서 잘 나타난다. 조만식은 평남 건준의 조직 편성을 김병연과 이주연에 맡겼는데 이주연은 사회주의자였다. 물론, 평남 건준은 개신교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타 종교인(김필현, 지창규)들도 참여했으며, 사회주의자(이주연, 한재덕, 김광진)들도 포함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처럼, 평남 건준은 민족주의자의 주도 아래 좌익인사를 포함시켰다. 이는 조만식이 평남 건준이 비록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지만 좌익을 포함하여 범민족적인 성격을 갖기를 원했던 것을 반영해 준다. 또한, 평남 건준의 주요 위원들은 일제 강점기에 실력양성론자들로서 온전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민회, 3·1운동, 조선물산장려운동, 신간회, 수양동우회사건 등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렀다. 김동원은 신민회와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윤영은 3·1운동에, 조만식과 오윤선, 김병연, 한근조 등은 조선물산장려운동에, 이주연, 홍기주, 지창규는 신간회, 최능진은 수양동우회사건에 각각 관련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어려움을 겪었다. 이윤영과 홍기주는 다 같이 친일 기독교에 반대하여 목사직을 면직당했다. 이후, 이들은 무력으로 일본과 투쟁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실력을 양성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자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이들은 학교사업, 물산장려운동, 절제운동, 농촌계몽운동, 신사참배 거부운동 등을 주도했다. 평남 건준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은 민족주의적이며, 기독교적이고, 실력양성을 주장하며,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유지들이었다. 조만식은 좌익과 타 종교를 고려하고, 젊은 사람들도 참여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건준의 인적 구성에서 민족의 총 역량을 집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것이다. 이들 평남 건준 위원들은 조만식이 10월 하순 창당한 「조선민주당」에도 대거 참여하였다. 조선민주당은 11월 3일 평양에서 105인 발기인 이름으로 창당하여 33인의 중앙상무집행위원을 선출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만식, 오윤선, 이윤영, 최용건, 이종현, 김병현, 우제순, 김익진, 백남홍, 김책, 조종완, 홍기한, 정인숙, 박현숙, 한여사, 오영진, 김규환, 이계환, 윤무준, 박재창, 박승환, 이호빈,

6) 1945년 8월 17일 오후 2시에 평남 건준이 조직되었다. 위원장에는 조만식이, 부위원장은 오윤선, 총무부장은 이주연, 치안 부장에 최능진, 선전부장에 한재덕, 교육부장에 홍기주, 산업부장 홍정모, 재정부장 박승환, 생활부장 이종현, 지방부장 이윤영, 외교부장 정기수, 무임소(민족주의) 김병연, 무임소(법조계) 한근조, 무임소(법조계) 김익진, 무임소(천주교) 김필현, 무임소(유립) 지창규, 여성부장 박현숙, 무임소(의학) 김병서, 무임소(민족주의) 김동원, 무임소(법조계) 노진설, 무임소 김광진 등, 총 21명이었다(박명수, 2015: 34-36).

윤장엽, 전영택, 홍기주, 차재익, 전준삼, 박선권, 김병조, 조명식, 고몽현, 2명 불명. 이들 중, 평남 건준의 위원이 조만식을 비롯해서 오윤선, 이윤영, 김익진, 박현숙, 홍기주 등 여섯 명이 된다(박명수, 2015: 121).

### 3. 한경직의 '기독교 국가'

한경직(1902-2000, 평남 평원군)은 오산학교(정주, 1916-1919)와 평양숭실대학(1922-1925)을 나와 미국으로 유학,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다. 1932년 귀국 후 평양숭인상업학교(조만식교장) 교목 겸 교사로 활동했고(김병희, 1982: 36), 1933년 신의주 제2교회에 전도사로 부임, 1934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1945년 9월 18일에 윤하영 목사(신의주제일교회 담임)와 함께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다. 당명을 '기독교사회민주당'이라고 붙인 데에는 "기독교의 동정이 자본계급보다는 노동편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한경직, 1956: 140). 기독교사회민주당은 공산주의의 독재와 자본주의의 빈익빈부익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민주주의의 수립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개량을 정강으로 하였다. 이 당은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의 기독교 정당으로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개량'을 그 정강으로 삼고, 소박한 기독교 사회윤리 정책의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북한지역 주민들 전체를 포섭하기 위하여 '사회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각 지방에 지당을 조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당세 확장에 힘썼다. 이 당이 조직된 주된 이유는 소련군이 조직한 공산당에 대결하고 그 세력의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북에 진주한 후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소련군이 공산당을 조직하여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데서 만들어졌다(허명섭, 2009: 82). 이로 인해, 기독교사회민주당은 공산주의자들의 주 공격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빈번한 충돌이 일어났다. 1945년 11월 16일 기독교사회민주당 용암포지부 결성대회에서 있었던 충돌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의주학생의거'가 일어났고 다수의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윤하영, 한경직 목사 등 중추적인 지도자들이 월남하면서 급속도로 와해 되었다.

한경직은 해방 후 서북 기독교 세력이 남한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1945년 10월 월남 후, 12월 2일 일본 천리교 경성교구 본부를 접수하여 베다니전도교회를 설립하였다. 1946년 11월 12일 베다니전도교회를 영락교회로 개명하였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 3일, 대전에서 「기독교구국회」를 출범하여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1946년 '기독교와 정치'라는 설교에서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촉구하였다. 십자가를 지고서 노동운동도 좋고, 정치운동도 좋다고 했다(한경직, 1956: 27). 해방 후 한국교회는 현실 정치영역의 중심에 뛰어 들었다. 한층 격상된 기독교의 위상과 공산주의 확장에 대한 위기의식, 축적된 인적자원 등을 바탕으로 정치

의 장으로 뛰어 들었다.

아래는 1946년 한경직 목사의 ‘기독교와 정치’ 설교 내용이다.

“오늘의 기독교인은 잠잠합니다. 최선의 정치 이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퇴영적(退靈的)으로 물러나서 가만히 틀어박히려는 성질이 있는(는)입니까? 좀더 주도성을 가집시다. 십자가를 가지고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합시다. 전후(戰後)에 각국의 기독교 민주당이 일어나 주도성을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보시오! 일어나 일합시다!”

“참 신앙을 가지고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교우들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전도는 최대의 정치운동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이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전도운동을 개시하여 전 대한 민족의 사상을 기독교 사상으로 순화(馴化)한다면 공의의 나라, 기독교 독립 대한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 4. 김교신의 ‘민족적 기독교’

김교신(1901-1945, 함남 함흥)은 정규 사범학교를 나와 생애의 대부분을 교사로서 활동하였으나, 그의 교육활동은 정규 학교의 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개인적 헌신으로 발행되다시피 한 《성서조선》(1927-1942)과 수련회 활동은 제도교육의 틀을 벗어난 사회교육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에 남다른 가르침과 정신, 민족교육을 보여 준 특별한 인물로 기억되었다. 한국 교회사에서 김교신은 크게 주목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에 관한 글들은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씌어 졌으며, 특히 김교신전집간행위원회(위원장 노평구)가 『김교신전집』(경지사, 1975)을 처음 간행한 뒤에 관련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임희숙, 2005: 252). 김교신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1918년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sup>7)</sup> 1927년 일본 유학에서 귀국하여 함흥영생여자보통학교와 양정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교육활동을 시작했다. 귀국 직후 동인들과 함께 《성서조선》을 발간하였다.

김교신의 사상은 일제하 피지배 민족이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민족의 자긍심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바르게 알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일과 관련이 있고, 민족의 주체성은 외세의 정신적, 물리적 침략으로부터 자주적 독립을 확립하는 일과 연관된다. 이와 같은 목표의식을 갖고 김교신은 지리교사로서 조선 지리와 조선의 역사적 인물을 학습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선교사들의 지배와 미국 기독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민족적 기독교를 정립하

7) ‘생애의 전환점’은 김교신의 동년배인 함석헌의 표현이다(함석헌, 1964: 77).

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문화에 대한 김교신의 남다른 관심과 열정은 당시 민족교육을 저지, 말살하려는 일제 식민지 교육 체제와 갈등을 빚고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교회의 교권주의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임희숙, 2005: 261). 이로 인해, 김교신은 1930년대 초반 이미 서북지역 장로교회와 평양신학교 쪽의 확실한 '눈엣가시'가 되어있었다. 김교신의 역사의식은 함석헌<sup>8)</sup>의 도움을 받아 심화되었고 조선 역사의 섭리사적 의미를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김교신의 비판적 역사의식은 부활 신앙을 통해서 더 정교해진다.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일제의 가혹한 전시체제 아래서 생존과 민족정신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 역사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김교신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우선, 함석헌이 있다. 다음은 《성서조선》그룹의 핵심이던 노평구가 있다. 김교신은 말년에 흥남질소비료공장으로 옮긴 후, 교육계 업무를 노평구에게 맡겼다. 그 다음은 류달영이 있다. 류달영은 수원고등농림학교 출신으로 김교신의 수제자이다. 그에게는 농장 관리일을 맡겼다. 김교신의 사람으로 불릴만한 인물들은 장기려가 있다. 장기려는 우치무라 간조의 수제자적인 야나이하라의 평양방문 때(1942) 김교신의 지시로 그 모임을 준비했었다. 당시, 장기려는 평양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교신의 기독교 사상은 그의 스승 우치무라 간조<sup>9)</sup>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했다. 우치무라가 일본식 기독교를 주장했다면, 김교신은 우치무라의 사상과 의식을 그대로 이어서 한국식 기독교를 주장한 것이다. 유학시절, 김교신은 자신과 함께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동인 다섯 명(함석헌 포함)과 함께 일본에서 '성서조선연구회'를 조직하였다. 1927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서도 이 모임은 지속되었다. 그해 7월에 《성서조선》이 창간된 것이다.

## 5. 김재준의 '개방적 기독교'

김재준(1901-1987, 함북 경흥)은 유소년 시절 유가적 세계관의 환경에 의해 근대적 세계로의 전환을 꾀하지 못하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전국적인 민족독립의 열망이 번져갈 때도 그는 식민지 민족의 운명을 개인의 삶과 연결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다(김재준, 1983: 37; 고지수, 2016: 51-55).

8) 함석헌은 《성서조선》 제61호부터 제83호에 걸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글을 연재하면서 자신의 역사관을 펴 려하였다. 그는 역사는 신의 아가페가 실현되는 무대이며, 인간의 신의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감을 갖고서 역사에 참여한다. 조선이 당하는 고난의 역사는 신의 아가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의의 현실이며, 조선사는 이러한 불의를 극복해야 하는 구 원사로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함석헌, 1950: 3-54; 임희숙, 2005: 265).

9) 우치무라 간조는 미국 농학자인 클라크가 세운 샤프트 농학교를 다닐 때 친구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후 친구들과 기도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민주적인 공동체였다. 이러한 새로운 신앙 경험은 우치무라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1882년, 그는 친구들과 서구식 교회가 아닌 일본식 교회인 샤프트 독립교회를 설립했다. 교회는 5명의 위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었는데, 대부분 사역을 투표로 처리했다. 1884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드포드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성직을 특권으로 보아서 성직자 되기를 거부했다.

1920년 송창근과의 만남이 그의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만우 송창근은 일찍 개화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였다. 15세에 간도로 건너가 명동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이때 이동휘와 인연을 맺게 된다. 송창근은 김재준을 만나 ‘새로운 시대’, ‘민족중흥’ 등을 웅변하고 개인의 삶에 머물렀던 김재준에게 변화의 계기를 이끌어 내었다(김재준, 1985: 20-21; 고지수, 2016: 55). 송창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지금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운은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김선생 같은 유능한 젊은이가 그저 이런데 묻혀 있을 때는 아닙니다. 서울에는 유명하신 백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정리하고 서울 와서 공부를 다시 하십시오”(김재준, 1985: 39). 김재준의 호인 장공도 송창근이 성 프란체스코의 시 ‘태양의 노래’에서 따와 ‘호’로 선사했다고 한다(장공김재준목사기념사업회, 2014: 40).

서울로 상경한 김재준은 1923년까지 서울 YMCA를 통해 기독교청년운동의 공간 안에서 근대적 세계를 섭렵해 나아갔다. 1920년 2월 윤치호의 뒤를 이어 신흥우 총무 체재의 YMCA는 3·1운동 이후 조직 재정비에 나서는 한편 문화론적 개조, 종교의 사회화, 사회복음주의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개조, 개혁, 중앙공론 등의 잡지를 섭렵하면서 ‘개조’의 흐름과 사회복음주의의 영향, 그리고 반기독교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기독교 사회주의 등이 시기 YMCA의 시대적 흐름을 함께 수렴해 갔다. 이로 인해, 1920년대 초 개조론적 세계관과 사회주의적 기독교의 범주 안에서 새로운 자아 발견의 계기들을 형성해 나아갔다. 한편, 회심을 경험한 그는 이후, 기독교적 애의 정신, 사회적 실천, 청빈 등 반물질주의(무소유) 정신에 깊이 천착하였다. 특히 인도의 성자 ‘선다 썩(Sundar Singh)’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을 추구했다(이덕주, 2016: 353-354). 이처럼, 김재준은 교리의 중심이 아닌, 삶에 기반을 둔 기독교적 윤리의식에 자신을 조화시키고 있었다.

일본 유학을 통해서는 신학적 자유주의보다 인간적, 사상적 사유에서의 자유에 큰 자원을 제공 받았다. 송창근의 권유로 일본유학에 오른 김재준은 비교적 자유로운 감리교 계통의 아오야마학원에서 공부하게 된다. 김재준은 아오야마학원(청산학원)에 대해 “청산학원이라면 ‘자유’가 연상된다. 학생이고 선생이고 간에 개인자유, 학원자유, 학문자유, 사상자유- 모두가 자유 분위기이다. 물속의 고기 같이 자유 속에 살았던 것이다.”라고 했다(김재준, 1983: 125). 1920년대 청산학원의 분위기는 사회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청산학원의 자유 분위기 속에 김재준은 독서모임을 통해 사회주의 이론을 섭렵하기도 했다(고지수, 2016: 65-66).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서 식민지 조건에서 ‘비교적 양심적’(기독교적 개인으로서의 윤리의식)으로 할 수 있는 일로 교회와 교육을 연결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설립을 꿈꾸게 된다. 이것은 앞서, YMCA를 통해 얻은 교육을 통한 계몽의식이 기독교 교육기관의 양성이라는 보다 구체화된 목표로 발전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신학 또는 교회에 부정적이었던 것을 볼 때 회심 후, 김재준에게는 인간 조성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했다.

미국에 유학 가서는 칼빈의 개혁교회 전통에 신학적 뿌리를 둔 미국 장로교 신학교인 프린스턴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면서 그레삼 메이첸(J. Gresham Machen)의 근본주의 신학을 접하고 관련 과목들을 빠짐없이 이수했다. 이로써, 김재준은 양극단의 신학을 거부하는 신학노선을 선택하게 된다(고지수, 2016: 72).<sup>10</sup> 1929년 웨스틴신학교로 편입하면서 구약학을 전공하면서 신학이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자리 잡혔고, 구체적으로는 구약학을 통해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관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방편이 마련되었다. 또한 불투명했던 기독교교육이 '신학교육'이라는 방향과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김재준은 1936년 8월부터 간도 용정의 은진중학교(캐나다장로교가 세움)에서 교편을 잡았다. 김재준은 1936년 4월 신사참배 불응으로 평양 보수교계와 마찰을 겪으면서 평양에 머무를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승전교장인 선교사 마우리(E. M. Mowry) 박사로부터 북간도 용정 은진중학교의 '교목 겸 성경교사' 자리를 제의를 받게 되는데, 이 제의의 원 발신자는 용정의 문재린이었다. 김재준보다 6살 연상인 문재린(문익환의 부)은 이 당시 은진중학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함경도 출신인 김재준을 평양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또 다른 삶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문동환, 2009: 139). 은진중학교는 은혜와 진리(요1:14)의 앞 자를 딛 것으로 선교사 푸트(W. R. Foote)에 의해 용정촌 예수교서회 2층에서 28명의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개교했다(고지수, 2016: 101).

이 당시 간도는 캐나다 선교부의 선교지로서 '자유주의 신학'을 취했다.<sup>11</sup> 김재준이 용정으로 간 것도 유학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가 미국 북장로교의 축자영감설, 성경무오류설, 사대적 선교사 의존과 신사참배(193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김재준이 이 당시 가르쳤던 제자들은 강원용, 안병무, 문익환, 문동환, 이상철(김재준의 사위), 장하린, 김영규, 전은진, 남병헌, 김기주, 신영희 등이다.

김재준의 사상과 정신은 철저히 민주주의적이며, 인간평등사상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가르치는 성서적 세계관, 노동의 신성성을 가르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다. 그는 근본주의적이고 교리주의적인 개신교나 교파 중심적 기독교 선교신학을 지양하고 더욱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기독교 신앙과 생활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문화간, 종교간, 교단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앞장섰다. 그의 이런 신앙과 신학사상은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0) 김재준은 아오야마(청산)학원에서 진보적 신학을 접했으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고, 프린스턴에서는 보수적인 인사들을 접했으나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즉 그는 극단적인 근본주의도, 극단적인 자유주의도 거부했다.

11) 캐나다 선교부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인물들이 김재준과 송창근이었다. 이들은 캐나다 선교지역 출신으로, 일찍이 이동휘 등 '민족주의적 기독교인들'(복음주의적 자유사상)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캐나다장로회 선교지역이며 함경도 출신이라는 독특한 인맥을 형성한다.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를 대표로 한 캐나다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신학과 신앙은, 한국 민족운동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다. (서정민, 2007: 271-275).

## IV. 개신교 지도자 간의 교차적 관계 및 공유된 기독교 사상

### 1. 개신교 지도자들의 출생지와 신학적 성향 연계

제3장에서 검토한 해방 전, 이북지역의 개신교 주요인물들이 세운 단체들은 그 설립시기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안창호의 수양동우회가 1926년으로 제일 먼저 설립되었고, 한경직의 기독교사회주의당은 1945년으로 가장 늦게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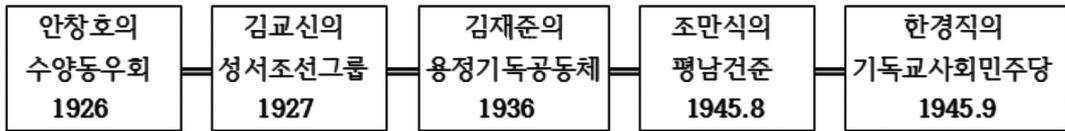


Figure 1. Time of foundation of the organizations which were established by major protestant figures

개신교 지도자들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안창호(평남 강서), 조만식(평남 강서), 한경직(평남 평원군)은 서북지방출신들이고, 김교신(함남 함흥)과 김재준(함북 경흥)은 관북지방출신들이었다. 제2장에서 서양선교사들의 선교분할지정에 따라, 서북지방은 미북장로회가 관북지방은 캐나다장로회(연합교회)의 전도지역이라고 했다. 서북지방은 근본주의(보수주의)에 관북지방은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주요세력의 대표자들의 신학적 성향을 볼 때, 출생지의 지리적 영향을 받았음이 어느정도 나타난다. 그 상관관계를 아래와 같이 모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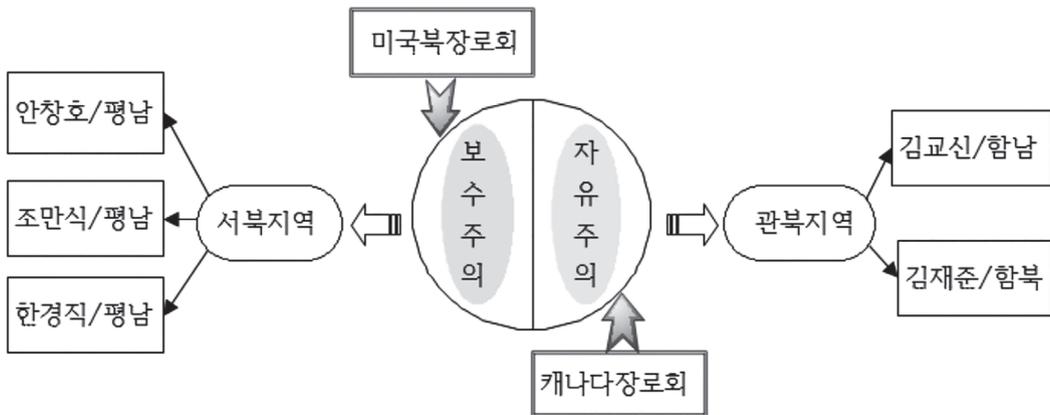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birth regions and theological tendencies of major representatives

## 2. 지도자들의 교차적 관계 및 상호영향력

바로 위의 검토만으로는 이들 지도자들의 정치 종교 성향을 파악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들이 상호간의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교차적 관계를 통해 상호영향력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도자들 간의 교차적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 그 장소 및 매개자(인물)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1) 안창호와 조만식의 관계

안창호는 1878년생, 조만식은 1883년생으로 연령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고향이 평남 강서로 같은 동향인이다. 자료를 보면, 두 사람이 일차 조우하는데 있어 그 매개자로 이승훈(1864년생, 평북 정주)을 들 수 있다. 안창호는 미국에서 귀국하여 1907년 이승훈을 비롯한 인사들과 신민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치하여 「청년학우회」를 조직했다.

조만식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13년에 귀국하여 평안북도 정주에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에 교편을 잡은 적이 있다. 이승훈은 1907년 평양에서 안창호의 교육 진흥론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 승천재(서당)를 개축하여 강명의숙을 세웠다. 또한, 신민회에 참여하여 재단을 만들어 오산학교를 세웠다. 이 오산학교에 조만식이 교사로 왔던 것이다. 안창호와 조만식의 일차 조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1907년 안창호의 평양 연설을 조만식도 듣고 매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당시는 단지 연설자와 청중의 관계였다. 서로 간의 조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사람의 교분은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가 1935년 감옥에서 출소할 때 찍은 기념사진 안에 조만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안창호가 1938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다시금 투옥될 때, 조만식은 여러 차례 문안 인사를 갔다고 한다. 안창호가 죽었을 때, 조만식이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성을 통해 조만식이 표방했던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은 안창호로부터 계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과의 관계

안창호와 조만식은 같은 서북지방의 한경직과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세대 차이가 느껴질 만큼 큰 폭의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 한경직은 조만식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뿐만 아니라 긴밀한 관계성이 있다. 조만식이 오산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한경직이 입학(1916-1919)한 것이다. 이 시기에 한경직은 조만식과 이승훈을 통해 민족정신, 인격수양에 대해 큰 영향을 받았다. 한경직은 오산학교에서 3년 동안 철저한 애국애족 정신과 기독교 신앙, 현대 학문과 기술을 배웠다. 특별히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과 그 당시 교장이던 고당 조만식을 통해 민족정신을 배웠고, 평생동안 인생의 큰 스승으로 모셨다고 한다(김은섭 외, 2015: 20). 한경직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32년 귀국 후 평양숭인상업학교 교목 겸 교사가 되는데, 당시 이 학교 이사장이 조만식이었다.

한경직과 안창호는 간접적인 연계성을 보인다. 그 일차적 매개 역할은 홍기주가 하는데, 홍기주는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출신으로 마포삼열 선교사(한경직을 전도)가 세운 자작교회에서 운영하는 진광소학교에서 성경, 찬송, 한국역사를 가르쳤다. 이때 한경직이 이 소학교를 입학하게 된다. 홍기주는 조만식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것을 제3장에서 확인했는데, 조만식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의 교육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홍기주는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지만, 해방 후에 교회를 떠나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안창호와 한경직의 일차적 조우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930년대 안창호와 한경직이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풍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1930년대 장로교 총회 초대 농촌부에서 일했던 김성원이 기술간사로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sup>12</sup> 한경직도 안창호의 연설을 들으면서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을 함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한경직과 김재준의 관계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은 서북지방출신들로 종교적 지형은 보수주의 성향이 강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성향이 강했던 김교신과, 김재준과는 관계성이 단절되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경직과 김재준은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조우하는데, 그 매개역할은 송창근이 한다. 김재준은 1920년 송창근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송창근을 통해 1923년 서울에 오게 되어 YMCA를 접하게 되었고, 그의 권유로 인해, 일본 유학과 미국 유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의 정치성향 및 신학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경직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보인다. 그 전에, 한경직과 김재준은 윤치호의 재정적 지원(각각 백원씩)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치호는 한국 YMCA 초대총무였고, 이 두 사람은 각각 평양에서(한경직), 서울에서(김재준) YMCA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13</sup> 또한, 한경직이 서울 YMCA 웅변대회도 참석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둘이 충분히 교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분명한 교분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유학시절이다.<sup>14</sup> 송창근을 포함한 이 세

12) 신한풍, ‘수원고농학생들의 항일투쟁’ 《뉴데일리》 2015년 2월 5일자 기사 내용 중.

13) 김재준과 YMCA 관계는 제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경직은 숭실대학 재학(1922-25) 중 평양 YMCA운동에 참가해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했고 서울에서 열린 YMCA 웅변대회에 참가도 하였다(김은섭 외, 2015: 22).

14) 당시 프린스턴대학교에는 송창근, 김재준, 이규용, 한경직이 함께 수학하고 있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주일 오후에는 따로 한 방에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하며 서로 사정을 토로하고 사귀를 가졌다. 이들은 내 일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이다’(한경직, 2010: 147-149).

사람은 1928년경 프린스턴신학교에서 함께 수학을 했다. 이 시기 세 사람은 교분이 두터웠다. 송창근은 목회신학, 한경직은 신약과 교회사, 김재준은 구약학을 전공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 '신학교육'을 발전시킬 것을 함께 맹약하기도 했었다(조성기, 2003: 88).

또 다른 경우에서도 김재준의 특이한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평양의 수양동우회와의 관계이다. 김재준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평양에 거주하였다. 그의 평양 생활은 송창근, 한경직과 프린스턴에서의 맹약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회 배경이 없던 김재준에게 교계 중심지 평양은 교회에의 데뷔와도 같은 것이었다(고지수, 2016: 76). 김재준보다 6개월 앞선 1932년 1월에 귀국한 송창근은 같은 해 4월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있으면서 평양신학교 3학년에 편입중이었다. 같은 해 1932년에 귀국한 한경직은 평양승인상업학교에서 성경교사 겸 교목과 숭실대학 채플 강사를 맡고 있었다. 김재준과 같이 함경도 출신에 자유주의적 일본 청산학원 유학을(근본주의보다는 자유주의노선을 따름) 하고 미국 유학 후 평양행이 초행인 송창근이 평양의 가장 대표되는 산정현교회 목회자로 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송창근의 흥사단 가입에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귀국길에 LA에 들러 1931년 9월 하순 김병연의 권유를 받고 흥사단에 입단했다(송우혜, 2008: 106).

1930년대 당시는 수양동우회의 영향력은 본회가 있는 서울보다 평양, 선천, 안악 지회가 더욱 강했으며, 특히 관서지방 기독교계 학교는 수양동우회조직의 유력한 재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sup>15</sup> 당시, 평양 수양동우회 핵심이던 김동원은 당시 산정현교회 장로이자 당회원이었다. 송창근의 미국에서의 흥사단가입과 귀국 이후의 수양동우회 가입은 그를 산정현교회 목회자로 세운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김재준에게도 다양한 경로로 동우회 측에서 가입의 제의가 왔다고 한다. 김재준의 귀국 강연회도 김동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30년대 평양에서의 김재준은 어떤 결사체에 의탁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는데, 이 시기 그는 집단적 관계 맺기보다 개인적 참여 방식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수양동우회와의 관계성의 단절을 뜻한다. 이로 인해 김재준은 평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경직이 신의주 제2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김재준은 승인상업학교의 성경교사 및 교목을 겨우 맡게 된다. 송창근과 한경직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을 것이다. 김재준이 비록 수양동우회의 가입을 거부했지만, 동우회의 사상, 즉 안창호의 개조론적 인식론과 수양론 등을 받아들여 그의 기독교적 갱신 사상에 도입했다고 한다(고지수, 2016: 81). 1945년 8월에 김재준이 작성한 “기독교의 건국이념”이라는 글 속에도 안창호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적 갱신 사상(기독교 민족주의)의

15) 당시 서울에는 정인과를 비롯하여 백낙준, 이대위, 이용설, 정용도 등이, 평양에서는 김동원을 비롯하여 이경선, 한승곤 외 김봉성, 김성업, 김하현, 박영로, 오정수, 이선행, 장성심, 최능진, 최운호 등, 선천에는 백영엽, 장리욱, 안악에는 김선량, 김용장 등이 동우회원이었다(장규식, 2001: 144-145).

내용들이 다분하게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가장 道德的인 때에 가장 文化的이며 가장 基督敎的인 때에 가장 道德的이라는 事實을 等閑視하여서는 안되겠다.”

“要件대 가장 基督敎的인 때에 가장 完美한 人格을 成就하여 지는 것이며 거기에 참으로 값있는 文化生活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이 高尚하여 지지않는 때 모든 近代 文明은 罪를 助長하며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一般恩寵의 선물이 罪人의 享樂物이 되어 文化自體가 長歎息을 할 것이니 「萬物이 하나님의 子女 나타나기를 渴望하며 歎息한다는 聖經말씀이 이를 말함이다. 이런 意味에서 거룩한 精神文明에 支配되지 않는 物質文明은 狂悖와 耽淪이 되는 것이다.” - “기독교의 건국이념” (7) 문화정책' 중.

“人間生活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幸福의 길 救援의 길이 있나니 그 길을 밝히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祝福이 暢達되어 國家, 民族의 영원한 幸福을 招來하는 그것이 治者, 指導者의 任務일 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朝鮮도 究極에 있어서 온 宇宙를 創造하시고 統治하시는 하나님의 統治(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朝鮮國 存在의 理由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榮光과 朝鮮國民의 眞正한 幸福을 위하여 朝鮮國은 存在한 것이다. 온 天下에 그리스도의 福音을 傳하여 하나님 나라가 地上에 臨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곧 眞正한 幸福의 길이며 이 일을 爲하여 選拔된 民族이 곧 朝鮮民族이라고 믿는다.”

- “기독교의 건국이념” ‘권위의 소재’ 중

신사참배문제로 1938년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송창근은 서울에 ‘조선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하고 총독부에 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우회 사건으로 보석중인 송창근은 총독부의 압력으로 학교설립에서 뒷선으로 물러나고, 김재준이 학교를 맡게 되었다. 후에 한경직이 신의주에서 피난 온 후, 서울에서 재회한 김재준 목사를 도와 교편을 잡고 학교 운영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한경직, 2010:321-322). 프린스턴 이래 동지적인 연대를 계속해 오던 한경직이 송창근 김재준의 조선신학교 측과 결별하게 되는 것은 김재준과 조선신학교의 신학 노선이 문제가 되어 전개된 일련의 한국 장로교계의 정치적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 김재준은 해방 후 구약개론과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모세 5경도 역사비판학적으로 해석했고 창세기도 문서설을 그대로 소개했던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 51명이 1947년 4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제 33회 장로회 총회에 김재준의 강의 내용을 필

기한 '노트'를 증거로 제시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신학 노선상의 갈등은 1952년 4월 29일 제37회 총회에서 김재준을 면직 처분하는 데까지 진행되었다. 이 처분에 대한 반발이 그 이듬해인 1953년 6월 기독교장로회를 출발시킨 것이다. 한경직은 신학노선상 김재준과 길을 달리하게 되었지만, 우정은 간직하고 있었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운동을 영락교회에서 김재준과 함께 했다.

#### 4) 김교신과 조만식, 한경직, 김재준의 관계

김교신과 이들 세 사람과 교차적 관계 및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활동영역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교신의 어린시절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가 함경도 함흥 출신으로 어렸을 때 한학을 공부하고 함흥보통학교를 거쳐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18세(1919년)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는 정도만 파악이 된다. 1920년 동경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1921년에 우치무라 간조(1861-1930, 무교회주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만나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영향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우치무라 간조'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교신이 19세였던 1920년 4월 18일에 마쓰다라는 청년의 노방 설교에 깊이 감동을 받고 우시코메구야라이정 홀리네스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2개월 후에는 시미즈 준조라는 그 교회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목사가 교회로부터 목사 지위 박탈당하는 사건을 보고 김교신은 교회를 탈퇴한다. 하숙방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던 김교신은 1921년 1월 16일부터 우치무라의 로마서 강의를 동경 오테정 위생회관에서 시작되자 첫 회부터 열심히 참석하였다. 1927년 3월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만 7년여를 우치무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노평구, 2002: 276-279).

김교신을 함석헌(1901-1989, 평북용천)으로 매개하면 조만식과 간접적인 연계로 이어진다. 함석헌은 조만식의 오산학교 교장 마지막 해인 1921년에 오산학교에 입학하였다. 조만식과 함석헌의 조우가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함석헌은 조만식의 민족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일본 유학에서 귀국(1928년)해서도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교편생활을 10년간이나 했다. 1947년에 월남하기까지 그는 이북지역에 머물면서 조만식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해방이 되자 함석헌은 용암포자치위원회위원장, 평북자치위원회 문교부장을 맡았었다. 함석헌을 매개로 하면 조만식과 김교신이 서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함석헌은 한경직과도 연계가 되어진다. 오산학교 선후배 사이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용암포에서부터 시작된 '신의주학생의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신의주학생의거 시발점은 한경직이 조직한 「기독교사회민주당」이 각 지방에 지당을 세우는 일환으로 용암포에서 개최된 지당 조직대회 때 소련이 공산당원을 동원하여 대회장을 습격하여 간부 전원을 살해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함석헌은 용암포자치위원회위원장으로 학생의거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체포되어 투옥되었었다. 비록 한경직이 10월에 월남하고, 학생의거가 11월에 발생했지만, 그 전에 한경직과 함석헌의 조우 및 연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도 한경직과 김교신은 직접적인 교류는 안했지만 서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교신과 김재준의 매개 인물은 안병무라 할 수 있다.<sup>16</sup> 안병무(1922-1996, 평남 안주)는 김재준의 직속 제자로 용정 기독교공동체의 일원이다. 하지만, 김재준보다 함석헌의 신학사상(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인물로 평신도교회를 창립하고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 안병무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서울대 학생이던 시절, 추종했던 인물도 함석헌이다(김건우, 2017: 184-185). 이 당시, 함석헌을 통해 무교회주의의 대표되는 김교신에 대해서도 많은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안병무는 김교신의 《성서조선》의 정신을 계승하기라도 한 듯, 1940년 9월에 『일본제국주의 철해하의 조선』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일본의 폭정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안병무를 통해, 김재준은 함석헌과 김교신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이처럼, 해방 전후에 이북지역에서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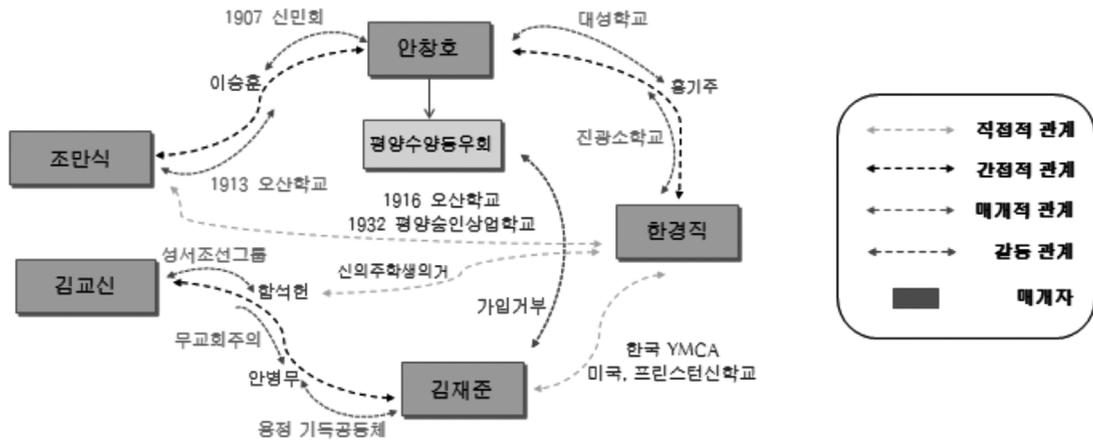


Figure 3. Intersection relations and interactions among the leaders

16) 김재준이 1926년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김교신이 1927년 3월 도교고등사범을 졸업하고 4월 귀국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같은 지역인 도쿄에 거주했다. 두 사람의 조우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김교신선생기념사업회>의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만난 기록을 접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V. 나가는 말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다룬 이북지역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민족주의' 토대에 개신교를 받아들였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일제 식민통치를 전후로 발전하였는데,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서구 제국주의가 아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며 민족을 국가에 앞서는 지상의 가치로 내세우며 일제의 천황제 국가주의에 대응하였다.

한국 개신교는 근대화 혹은 문명화를 매개하면서 민족주의와 깊숙이 연결되어 한국사회의 주류 종교로 자리잡아 나갔고, 한국 민족주의가 일제시기 한국사회에서 보존되고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와 매개가 되었으며, 개신교 복음이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민족주의와 '접합'하여 '기독교 민족주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개화 계몽기 이후 이북지역에서 성리학에 반하는 진보의 매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개신교였다.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다룬 이북지역의 주요세력의 지도자들은 한국개신교 민족주의자들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독교 민족주의'가 이 지도자들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항마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안창호와 같은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처음 주창하게 된 것이다. 그 출발점은 1896년에 세워진 독립협회라 할 수 있다. 협회를 세운 주요인물인 서재필, 윤치호, 안창호는 성리학 배경 아래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개신교 개혁가들로서,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힘을 기르기 전에 내면적, 영적, 윤리적 강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상을 내세우며, 인간개조 및 인격수양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이가 바로 안창호였고 그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단체가 바로 수양동우회였다.

제4장에서 확인한 대로, 안창호의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은 매개자들을 통해 이북지역의 다른 주요세력의 지도자들인 조만식과 한경직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 아래 있던 김재준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쳤다. 김교신은 이들보다 더 강한 민족주의 성격을 띤 민족적 기독교를 주창한 만큼, 이들 모두에게는 민족주의 정신이 공통적으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조만식은 경제개조에 앞장서서 '평양물산장려회'를 이끌면서 민족독립을 위한 실력양성론을 주장했다. 한경직은 해방 이후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개량을 그 정강으로 삼았다. 김교신은 조만식의 영향을 받은 함석헌에게 역사의식을 수용 심화시켜 역사바로알기를 통한 주체성 확립 및 실력배양운동을 펼쳤다. 김재준 또한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의 거대한 흐름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3장, 4장에서 검토한 대로, 김재준의 기독교 정신 및 사상은 그의 출생지역인 관북지방의 선

교를 담당했던 캐나다장로회(연합교회) ‘자유주의 신학노선’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 그의 진보적 의식 또한 이때 배양된 것이다. 이는 출생지의 종교지형이 사상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준다. 김재준은 서울 YMCA 경험을 통해서도 기독교 민족주의와 동시에 기독교 사회주의 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 일본 청산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김재준은 문화간, 종교간 화합을 내세우는 개방적 기독교 신앙에 귀착하게 되고 한국교회의 주류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원(the origin)이 된다. 그의 제자이면서, 함석헌에 영향을 받았던 안병무는 결국 기독교사회주의의 결정체인 ‘민중신학’을 만들어 냈다.

일본 유학 전에 기독교와는 무관했던 김교신은 일본에서 우치무라 간조의 사상에 도취되어 그 사상을 수용한다. ‘한국의 우치무라 간조’로 불리며 우치무라 간조의 ‘일본식 기독교’ 논리를 그대로 모방하여 ‘한국식 기독교’를 주창하였다. 이는 토착주의 기독교의 한 형태로 무교회주의로 체현된다. 이 모형 또한 이후, 한국개신교의 한 종교지형을 이루었다. 이처럼, 해방전 개신교 자유주의 진영은 이후, 에큐메니칼 운동(종교적다원주의, 민중신학, 기독교사회주의)과 토착주의 기독교(한국식 기독교, 무교회주의)를 양산해 내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보수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구축한 기독교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했던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민족의 주체성 확립 및 실력배양운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이 서 있던 종교지형은 분명하게 달랐고, 이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개신교 안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여전히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으로, 더 큰 범주로는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격수양 및 실력양성을 통한 개인개조 및 사회개조, 더 나아가 민족개조, 국가개조를 동일하게 꿈꾸었던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인격함양의 개인개조를 통한 사회개량(조) 및 국가개조(남북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고 있는가. 민족교육을 통한 민족정신이 발현되고 이것이 ‘기독교 민족주의’로 승화될 때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에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명숙 (1999). **일제하 한국기독교인들의 사회경제상**. 서울: 백산 자료원.  
[Kang, M. S. (1999).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Korean Christian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eoul: BaekSan Archives.]
- 강정구 (1992). **해방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서울: 풀빛.  
[Kang, J. G. (1992).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defecting and classification of Wolnamin(defector) after Liberation*. Seoul: Grass Green.]
- 고지수 (2016).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선인.  
[Go, J. S. (2016). *Kim Chai-Choon and the origin of protestant democratic movements*. Seoul: SunIn.]
- 국사편찬위원회 (1987). **북한 관계사 자료집(제4권)**. 서울: 탐구당.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987). *History of North Korean Relations source book (Vol.4)*. Seoul: Tamgudang.]
-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2002). **기독교대백과사전(제14권)**. 서울: 기독교문사.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Christian Encyclopedia (2002). *Christian Encyclopedia (Vol.14)*. Seoul: Korean Christian Literature Press.]
- 김건우 (2017).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우익의 기원**. 서울: 느티나무책방.  
[Kim, G. W. (2017). *Designers of Republic of Korea: The origins of the student soldier generation and the Korean right wing*. Seoul: Neutinamu Bookstore.]
- 김광식 외 (2008). **종교계의 민족운동**. 천안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Kim, G. S. et al. (2008). *National Movement of Religious Fields*. CheonA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 김권정 (2015).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Kim, G. J. (2015). *Korean Christianity national movement theory and the national movement*. Seoul: Korean Studies Institute.]
-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Kim, G. O. (1999). *Life experience and Identity of People who came from N.K.*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김명수 (2006). **안병무: 시대와 민중의 증언자**. 서울: 살림

- [Kim, M. S. (2006). *Ahn Byeong-mu: A Witness about the epoch and the people*. Seoul: Salim.]
- 김병희 엮음 (1982). **한경직 목사**. 서울: 규장문화사.
- [Kim, B. H. (1982). *Rev. Kyung Chik Han*. Seoul: Kyujang.]
- 김양선 (1956). **한국기독교해방 십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 [Kim, Y. S. (1956). *History of Korean Christian Liberation Decade*. Seoul: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Education department.]
- 김은섭 외 (2015). **한경직 목사와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E. S. et al. (2015). *Rev. Kyung Chik Han and Korean Church*.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재준 (1968). **한 권의 성서: 인간이기에**. 서울: 종로서적.
- [Kim, J. J. (1968). *A Book of Bible: Because of Being human*. Seoul: Jongno Books.]
- 김재준 (1983). **凡庸記**. 서울: 풀빛
- [Kim, J. J. (1983). *Bumyonggi(Biography)*. Seoul: Grass Green.]
- 김재준 (1985). **만우 회상기**.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 [Kim, J. J. (1985). *Memorial of Song Chang-gun*. Seoul: Hanshin University Press.]
- 김준엽 (2003). **장정1: 나의 광복군 시절(상)**. 서울: 나남출판사.
- [Kim, J. Y. (2003). *Jang Jung 1: My Liberation Army Days.(Vol.1)*. Seoul: Nanam Publishing.]
- 김창순 (1990). **북한민주통일운동사: 평안도편**. 서울: 북한연구소.
- [Kim, Ch. S. (1990). *The History of North Korean Democratic Unification Movement: Pyung-an Province*. Seoul: North Korea Research Institute.]
- 김홍수 엮음 (1992). **해방 후 북한 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 [Kim, H. S. (1992). *North Korean Church History After Liberation*. Seoul: Dasan Publishing.]
- 김홍수 엮음 (1992).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Kim, H. S. (1992). *Korean Christianity and Socialis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eoul: The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 김홍수 (1999).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Kim, H. S. (1999). *A Study on the Korean War's impact and the spread of this-worldly blessing*. Seoul: The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 노평구 (2002). **김교신 전집: 제2권 신앙론**. 서울: 부키
- [Noh, P. G. (2002). *Kim Kyo-shin complete collection: The second volume. Theory of Faith*. Seoul: Booki.]

- 로버트T. 올리버, 박일영 역. (1990). **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이승만의 한미관계**. 서울: 계명사.
- [Robert T. Oliver (1990).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Seoul: Gyemyong Publishing.]
- 문동환 (2009). **자서전: 떠돌이 목자의 노래**. 서울: 삼인.
- [Moon D. H. (2009). *Autobiography: A song of wandering shepherd*. Seoul: Samin.]
- 박명수 (2015). **조만식과 해방후 한국정치**. 서울: 북코리아.
- [Park, M. S.(2015). *Cho, Man-Sik and Korean politics after liberation*. Seoul: Book Korea.]
- 배민수 (1994).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어촌부.
- [Bae, M. S. (1994).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General Assembly Rural missionary department.]
- 서정민 (2007). **이동휘와 기독교: 한국사회주의와 기독교 관계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Seo, J. M. (2007). *Lee Dong Hwi and Christianity: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Korean Socialism and Christianity*.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서중석 (2008).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서울: 역사비평사.
- [Seo, J. S. (2008). *Research on Korean Modern National Movement 2*. Seoul: History Criticism Publishing.]
- 심지연 엮음 (1986). **해방정국논쟁사 1**. 서울: 한울.
- [Shim, J. Y. (1986). *The History of dispute about political situation in Liberation period I*. Seoul: Hanwul.]
- 송우혜 (2008).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송창근 평전**. 생각나눔.
- [Song, W. H. (2008). *The wall becomes the door: Critical biography of Song Chang-gun*. Thought Sharing.]
- 와다 하루키 (2014). **북한 현대사**. 서울: 창비.
- [Wada Haruki (2014). *Modern History of North Korea*. Seoul: Changbi.]
- 윤경로 (1986).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출판사.
- [Yoon, G. R. (1986). *Korean Christianity and the national movement*. Seoul: Bosung Publishing.]
- 이덕주 (1997).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 [Lee, D. J. (1997). *Confessions of faith from the Korean Christians*. Seoul: Handeul.]
- 이덕주 (2016). **장공 김재준의 신학세계 2**.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 [Lee, D. J. (2016). *The Theory of ChangGong Kim Chai Choon 2*. Seoul: Hanshin University

Press.]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Lim, J. H. (1999). *Nationalism is rebellion: Beyond the nationalism discourse of Myth and futility*. Seoul: Sonamu(Pine tree).]

장규식 (2001).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서울: 혜안.

[Jang, G. S. (2001). *A Study on the Korean Christian Nationalis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eoul: HyeAn.]

장규식 (2007). **민중과 함께한 조선의 간디**. 서울: 역사공간.

[Jang, G. S. (2007). *Chosun's Gandhi*. Seoul: History Space.]

장공김재준목사기념사업회 (2014). **장공 김재준의 삶과 신학**.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Rev. Changgong Kim Chai Choon Memorial Program (2014). *The Life and Theory of Chang-gong Kim Chai Choon*. Seoul: Hanshin University Press.]

조성기 (2013). **한경직 평전**. 서울: 김영사.

[Cho, S. G. (2013). *The Critical biography of Rev. Kyung Chik Han*. Seoul: Gimmyoungsa.]

케네스 웰즈 (2017). **새 하나님, 새 민족: 1896-1937년 한국 개신교와 자기개조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 서울: 순교자의 소리.

[Kenneth M. Wells (2017).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s and Self- 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1937*. Seoul: Voice of Martyrs.]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1989).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사, 1989.

[The Institutes for Korean Church History (1989).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Seoul: Korean Christian Literature Press.]

한경직 (1956). **기독교와 건국**. 서울: 기문사.

[Han, K. C. (1956). *Christianity and foundation of nation*. Seoul: Korean Christian Literature Press.]

한경직 (2010). **한경직 구술 자서전: 나의 감사**. 두란노.

[Han, K. C. (2010). *Han Kyung-chik oral autobiography: My thanks*. Seoul: Duranno.]

함석헌 (1950).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서울: 삼중당.

[Ham, S. H. (1950). *Chosun History viewing from Biblical Approach*. Seoul: Samjungdang.]

함석헌 (1964).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서울: 삼중당.

[Ham, S. H. (1964). *I'll take this step until I die*. Seoul: Samjungdang.]

허명섭 (2009).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1945-1960**. 서울: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Heo, M. S. (2009). *The Restructuring of the Korean Church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

1945-1960. Seoul: Institute for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 2. 소논문

- 강인철 (1992). 월남개신교, 천주교의 뿌리: 해방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역사비평**, 19, 91-141.
- [Kang, I. C. (1992). Root of Walnam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Revolution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Christianity. *History Criticism*, 19, 91-141.]
- 강인철 (2008). 남한의 월남 개신교인들: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에 미친 차별적 영향. **종교문화비평**, 13(13), 131-158.
- [Kang, I. C. (2008). The Protestant Wolnamin and Korean Politics: Their Different Influences upon Anti-Communism and Democracy. *The Critical Review of Religion and Culture*, 13(13), 131-158.]
- 김건우 (2015). 김재준과 '한신' 그룹의 탄생. **주간동아**, 대한민국설계자들15.
- [Kim, G. W. (2015). Kim Jae Joon and the birth of group 'HanShin'. *Magazine DongA*. Designers of Republic of Korea No.15.
- 김권정 (1997).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관한 연구. **송실사학**, 10, 195-229.
- [Kim, G. J. (1997). Anti-Christian Movement of Socialist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SOONG SIL SAHAK*, 10, 195-229.]
- 김상태 (1998). 평안도 기독교 세력과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비평** 45, 171-207.
- [Kim, S. T. (1998). Pyongando Christian power and formation of pro-American Elites. *History Criticism*, 45, 171-207.]
- 박명수 (2017). 이윤영 목사와 해방공간의 반탁·통일운동.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특별 심포지엄 발표집**.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 [Park, M. S. (2017). Rev. Lee, Yoon-Young and Anti-Trusteeship-Reunification Movement of the Liberation Space. *Announcement of special symposium celebrating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 손규태 (1990). 기독교와 민족주의. **기독교사상** 34(3), 157-165.
- [Son, G. T. (1990). Christianity and Nationalism. *Christian Thought* 34(3). 157-165.]
- 양준석 (2017). 해방공간에서의 한반도와 동유럽; 공산화 과정과 기독교 탄압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41(2), 209-244.
- [Yang, J. S. (2017). *Korean Peninsula and Eastern Europe in Liberation Space: Focusing on Communization process and Repression of Christianity*. East European & Balkan Studies Vol. 41, no.3, 209-244.]

- 임희숙 (2005). 김교신의 민족교육과 기독교. **신학사상**, 128, 251-284
- [Lim, H. S. (2005). The National Education and Christianity of Kyo-Shin Kim. *The Quarterly of the Korea Theological Study*, 128, 251-284.]
- 장규식 (2003). 해방직후 기독교사회단체의 동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61. 16-23
- [Jang, G. S. (2003). The trends of Christian social movements after Korean Liberation. *Newspaper of The Institutes for Korean Church History*, 61. 16-23.]
- 정교진 (2018). 해방전후 월남개신교 정치인, 김병연의 애국애족운동 연구. **신앙과 학문**, 23(4), 179-216.
- [Jung, K. J. (2018). A Study on a Patriotic Movement of Kim, Byung-yeon, a Wolnam protestant politician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Faith & Scholarship*. 23(4), 179-216.]
- 최영근 (2010). 동아시아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관계: 일제시기 한국기독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7집, 9-50.
- [Choi, Y. K. (2010). The relations between Christianity and Nationalism in the East Asia: focusing on the Korean Christianity Nationalis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 37. 9-50.]
- 최영근 (2017). 근대 한국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 관계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집, 131-174.
- [Choi, Y. K.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Christianity and Nationalism in the modern Korea: focusing on the period from the early days of missionary work to the establishment of ROK government.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Vol.0. No.104. 131-174.]

### 3. 학위논문

- 김현정 (2010). 1945~60년 월남 개신교인의 현실인식과 통일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H. J. (2010).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opinions on Unification found in 1945-1960 among North Korean Protestant defectors*. Masters Dissertation. Ewha W. University, Seoul, Korea.]
- 박민형 (2001). 8.15 해방직후 남북한의 정치현실에 대한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기독교신학대학교.
- [Park, M. H. (2001). *Role of Church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n politics after the independence 8.15*. Masters Dissertation.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 손영준 (1993). 월남한 기독교인이 남한 교회와 사회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Son, Y. J. (1993). *Influence of Wolnam Christian on South Korean Church and Socie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Theological University, Cheonan, Korea.]
- 정주아 (2011).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Jeong, J. A. (2011). *A study on the locality and cosmopolitanism of modern Korean writers of northwestern origi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해방전 이북지역 개신교 주요인물 및 종교지형 연구: 주요인물 상호관련성 및 '기독교 민족주의'사상 공유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jor Protestant figures and Religious landscape  
in the northern region before liberation: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major figures  
and the sharing of 'Christian Nationalism' ideology

정교진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임호정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수료)

## 논문초록

개화 계몽기 이후 이북지역에서 성리학에 반하는 진보의 매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개신교였다.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다룬 이북지역의 주요세력의 지도자들인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 김교신, 김재준은 한국개신교 민족주의자들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기독교 민족주의'가 이들 개신교 지도자들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항마 성격이 강하다. 물론, 안창호와 같은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보수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구축한 '기독교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했던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민족의 주체성 확립 및 실력배양 운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이 서 있던 종교지형은 분명하게 달랐고, 이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개신교 안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여전히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으로, 더 큰 범주로는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격수양 및 실력양성을 통한 개인개조 및 사회개조, 더 나아가 민족개조, 국가개조를 동일하게 꿈꾸었던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인격함양의 개인개조를 통한 사회개조 및 국가개조(남북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고 있는가. 민족교육을 통한 민족정신이 발현되고 이것이 '기독교 민족주의'로 승화될 때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에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근본주의, 자유주의, 종교지형, 기독교 민족주의, 범 종교적 국가, 기독교 국가, 민족적 기독교, 개방적 기독교